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2010년 세계 보험” – 세계 수입보험료 총액 및 보험업계 자본력 증가

Contact:

Daniel Staib, Zurich
Telephone +41 43 285 8136

Thomas Holzheu,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190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경제 회복, 자본력 및 지급능력 회복에 힘입어 2010년 세계 수입보험료 총액 견실한 증가 기록
- 중국 보험 시장이 규모면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신흥시장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증가
-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2011년 7월 6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이 최근 발간한 시그마 보고서 “2010년 세계 보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세계 수입보험료 총액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 면에서 생명보험은 3.2%, 손해보험은 2.1% 증가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신흥시장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업계의 자본력과 지급능력은 개선된 반면 낮은 금리는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세계 보험 시장에 대한 스위스재보험의 연례 평가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시그마 보고서에서 다룬 78개 시장 중 3/4이 수입보험료 총액 면에서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 견실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보험업계의 자본력과 지급능력이 개선되었으나 저금리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3.2% 증가

2010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3.2% 증가한 2조 5천 2백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 견실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일부 대규모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2009년에 비해 완만하긴 하나 감소세를 보였다. 저금리는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생명보험사의 채권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생명보험 업계의 장부상 자본력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그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다니엘 스타이브는 “전체적으로 업계는 장기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난해에 매우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매력적인 비갱신형 단일 보험료 상품의 판매가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신흥시장의 경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3% 증가를 기록했다. 동남아 지역은 전통적인 보험 상품과 투자 연계 상품에 대한 수요와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도 브라질을 선두로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그 뒤를 따랐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2.1% 증가

2010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2.1% 증가를 기록했다. 신흥시장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강한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보험 수요가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입보험료 총액이 증가했다. 2010년 보험업계의 자본력은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언더라이팅 실적 감소는 대부분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대규모 유럽 시장에서도 손실을 기록했다. 유럽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 보험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8개 대규모 시장에서 2년 연속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액과 기타 비용을 완전히 총당하지 못했다. 다니엘 스타이브는 “이들 선진 시장의 평균 합산비율은 2009년에 기록한 101%보다 더 악화된 103%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대재해 손실을 감안할 때 2011년에는 전 세계 언더라이팅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현재 보험요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와 영국 등 일부 시장의 경우, 개인 자동차 보험 요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마침내 언더라이팅 사이클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2011년에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아직 잔존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부문 모두에서 낮은 투자 수익이 유지될 것이다.

“선진 시장의 경우, 미국의 생명보험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리 보장성 생명보험 상품의 매력이 감소, 수입보험료 성장이 둔화 될 수 있다”고 다니엘 스타이브는 밝히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는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게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2011년에는 수입보험료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보험요율 상황 조정이 시작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세계 보험시장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4%에서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규모 면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10년 이내에 세계 2위 규모의 보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에 있어 주요 리스크로는 유로권 국가부채 위기 확산과 주요 산유국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오일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전 세계 보험시장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평가이다. 2010년의 데이터 및 예상치가 있는 시장은 78개국으로 이들은 전체 수입보험료 총액의 98%를 차지한다. 본 보고서는 총 147개의 보험 시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Developments in the major insurance markets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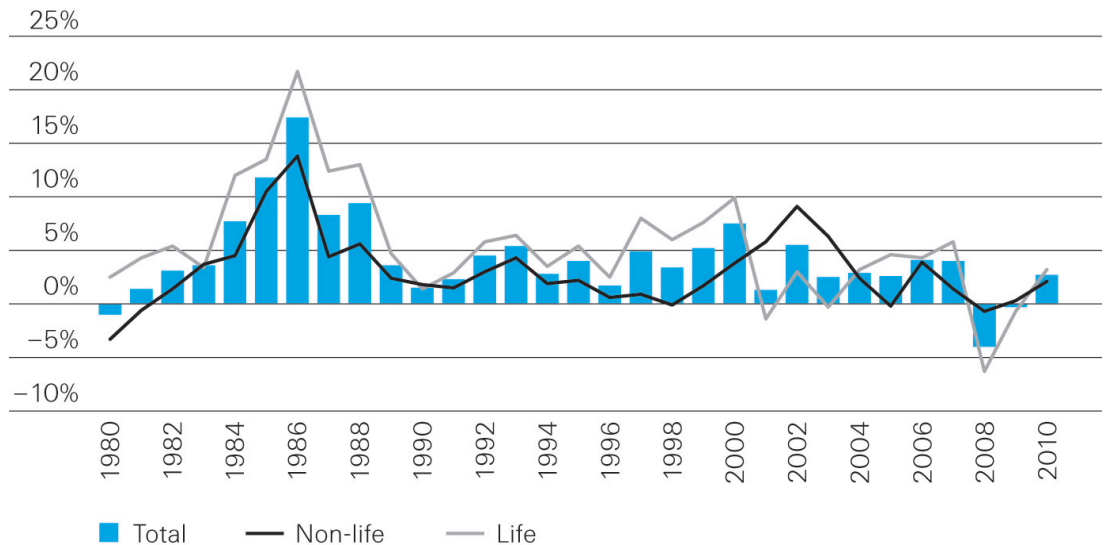
	Ranking by premium volume 2010	Life Premiums		Non-life premiums		Total premiums		Insurance density (USD)	Insurance penetration
		USD bn	Change* vs 2009	USD bn	Change* vs 2009	USD bn	Change* vs 2009	2010	2010
Industrialised countries		2'156	1.8%	1'533	1.0%	3'689	1.4%	3'527	8.6%
United States	1	506	-0.7%	660	0.2%	1'166	-0.2%	3'759	8.0%
Japan	2	441	0.0%	116	0.6%	557	0.1%	4'390	10.1%
United Kingdom	3	214	-3.3%	96	-1.2%	310	-2.7%	4'497	12.4%
France	4	192	2.6%	88	0.9%	280	2.1%	4'187	10.5%
Germany	5	115	6.6%	125	1.5%	240	3.9%	2'904	7.2%
Italy	7	122	9.6%	52	0.1%	174	6.6%	2'766	8.1%
Hong Kong	24	23	10.0%	3	2.5%	26	9.0%	3'636	11.4%
Emerging markets		364	13.1%	286	8.4%	650	10.9%	110	3.0%
Latin America and Caribbean		55	12.2%	73	5.5%	128	8.2%	219	2.7%
Brazil	15	33	12.6%	31	7.9%	64	10.3%	328	3.1%
Mexico	29	9	4.5%	10	-4.8%	19	-0.7%	173	1.9%
Central and Eastern Europe		20	5.7%	68	-2.1%	88	-0.4%	272	2.6%
Russia	19	1	33.9%	41	-1.1%	42	-0.6%	297	2.3%
South and East Asia		238	17.5%	98	21.9%	336	18.8%	94	3.7%
China	6	143	25.6%	72	27.5%	215	26.2%	158	3.8%
India	11	68	4.2%	11	9.8%	78	4.9%	64	5.1%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8	6.4%	25	7.5%	33	7.4%	104	1.5%
United Arab Emirates	46	1	4.1%	5	7.2%	6	6.7%	1'248	2.1%
Africa		47	-2.4%	20	4.1%	67	-1.1%	65	3.9%
World		2'520	3.2%	1'819	2.1%	4'339	2.7%	627	6.9%

Notes: * in real terms, ie adjusted for inflation.

Insurance penetration = premiums as a % of GDP; Insurance density = premiums per capita

Sources: final and provisional figures released by supervisory authorities and insurance associations, and some estimates.

Real premium growth in life and non-life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